

연구 자료

절화류 수출 확대 방안

박 기 환* 이 두 순**

1. 서론
2. 절화류 수출입 현황
3. 절화류 수출의 단계별 문제점
4. 절화류 수출 확대 방안
5. 결론

1. 서론

우리 나라 화훼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화훼생산이 가능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현대화 추진과 기술수준 향상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다. 또한 그동안 화훼는 다른 작목에 비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작목으로 부상되어 농림업 생산액은 매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화훼생산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IMF관리체제로 국내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화훼류, 특히 절화류의 가격이 1997년 대비 절반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여 화

훼 재배농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화훼생산 급증에 따른 과잉공급이 우려되므로 적정 수급과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서도 해외시장 개척은 필요하다.

국내 소비위축과 꽃값 하락 등으로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화훼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6월말 현재 화훼류 수출액은 6,149천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8배로 증가되었다. 특히, 절화류 수출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수출액 기준으로 전년도 6월말 대비 장미는 41.3배, 나리¹는 4.1배로 증가하여 IMF시대에 효자산업으로 정착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국내가격보다 수출화훼가격이 오히려 안정적이며, 환율상승으로 인한 해외수출가격의 상대적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다소 호전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수지 개선과 아울러 외화획득 측

* 연구원

** 연구위원

¹ 나리는 통상 백합으로 불리고 있으나, 백합은 일본식 표기이다. 원예연구기관에서도 백합의 명칭을 나리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표 1 주요국가의 화훼류 수출액 추이

단위: 천달러

순 위	국 가	1994				1995				
		Flowers	Foliage	Plants	계	Flowers	Foliage	Plants	계	
'94	'95	세계전체	2,712,474 (100.0)	408,295 (100.0)	1,523,110 (100.0)	4,643,879 (100.0)	3,153,142 (100.0)	479,240 (100.0)	1,743,850 (100.0)	5,376,232 (100.0)
1	1	네덜란드	1,594,666 (58.8)	35,854 (8.8)	769,179 (50.5)	2,399,700 (51.7)	1,845,946 (58.5)	45,188 (9.4)	885,548 (50.8)	2,776,682 (51.6)
2	2	콜롬비아	389,191 (14.3)	395 (0.1)	603 (0.0)	389,191 (8.4)	438,534 (13.9)	1,739 (0.4)	649 (0.0)	440,922 (8.2)
3	3	덴 마 크	3,306 (0.1)	22,091 (5.4)	185,834 (12.2)	211,231 (4.5)	2,097 (0.1)	22,983 (4.8)	199,035 (11.4)	224,115 (4.2)
5	4	이탈리아	67,587 (2.5)	50,842 (12.5)	45,617 (3.0)	164,047 (3.5)	78,381 (2.5)	65,110 (13.6)	51,474 (3.0)	194,965 (3.6)
4	5	이스라엘	139,755 (5.2)	10,879 (2.7)	16,709 (1.1)	167,343 (3.6)	146,672 (4.7)	11,958 (2.5)	18,581 (1.1)	177,211 (3.3)

주: ()안은 구성비임.

자료: The International Floriculture Trade Statistics, 1997.

면을 위해서도 화훼수출은 더욱 증대되어야 하며, 수출은 불경기에 직면한 화훼업계의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화훼수출의 필요성·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화훼수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화훼수출 특히, 절화류 수출의 단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 절화류 수출입 현황

2.1. 세계 화훼 수출입 현황

세계의 화훼 교역액은 1994년 4,644백만달러에서 1995년 5,376백만달러로 15.8%가 증가하였으며, 세계 화훼 총생산액의 21%가 세계시장에 수출되고 있다. 화훼 교역액을 품목별로 보면 절화류(Flowers)가 58.7%, 분화류

(Plants) 32.4%, 관엽류(Foliage)가 8.9%로 세계 화훼 교역량의 주종은 절화류이다(표 1).

국가별 절화류 수출은 네덜란드가 58.5%인 1,846백만달러, 콜롬비아는 439백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3.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4.7%, 이탈리아 2.5%, 덴마크가 0.1%의 비중을 점유하는 등 세계 절화류 수출액의 79.7%를 소수의 화훼선진국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계 화훼시장에서 네덜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네덜란드가 세계 수출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원인은 시설·장치의 우위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 축적에 의한 품종 등 소프트웨어의 우위이다. 그리고 화훼시장의 발달로 세계 화훼 수출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일단 생산지에서 알스미어 등 네덜란드 경매시장을 거쳐 세계 각지의 수입국으로 분산되는 유통상의 유리점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다른 화훼국가의 시설·기술

표 2 화훼 3대 소비권의 수입 추이

단위: %

	소 비 권								
	EU			미 국			일 본		
	1993	1994	1995	1993	1994	1995	1993	1994	1995
유 럽 지 역	79.1	80.1	80.0	3.9	4.6	4.5	35.0	33.2	32.9
중 동 국 가	4.4	4.5	4.2	0.4	0.4	0.5	1.6	1.8	1.0
아 프 리 카	4.2	4.4	5.0	0.3	0.5	0.4	1.9	1.9	2.5
남 북 아 메 리 카	7.9	9.3	9.1	90.9	90.3	90.5	11.8	11.0	11.4
극 동 지 역	4.4	1.8	1.7	4.5	4.1	4.2	49.8	52.1	5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The International Floriculture Trade Statistics, 1997.

투자의 증대로 네덜란드와의 기술 격차는 감소하고 있으며 고임금과 환경보호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².

세계 화훼 3대 소비권으로는 EU, 미국, 일본을 들 수 있으며, 특히 EU 중에서 주요 화훼 수입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다. 이들 3대 소비권은 화훼류의 최대 생산권이자 수입국으로서 타 국가에 비해 많은 화훼를 소비하고 있다.

<표 2>는 화훼 3대 소비권의 권역별 수입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EU의 경우 유럽지역에서 1993년 79.1%, 1995년 80.0%를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1993년 90.9%에서 1995년 90.5% 이상을 남북아메리카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93년 화훼수입액 중 35.0%를 유럽에서 수입했으나 1995년에는 32.9%로 낮아졌다. 일본이 극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1993년 49.8%에서 1995년

52.2%로 높아져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선의 극동지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화훼의 경우 선도유지와 수송비용 등을 고려해 대부분 같은 권역에 속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화훼를 수입할 수 있고, 극동지역 화훼 가격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화훼 소비대국인 일본이 극동 지역에서 수입 물량을 늘리고 있음은 가장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화훼 수출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2.2. 국내 화훼 수출입 현황

화훼 수출은 1980년 1,055천달러에서 1997년 6,070천달러로 연평균 10.8%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1980년 1,123천달러에서 1997년 39,198천달러로 연평균 2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해마다 무역수지 적자는 증가하여 1997년 33,128천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표 3).

1980년대 중반까지 화훼류 수출의 주품종은 절지절엽이었으나, 1988년 이후부터는 묘목류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 전체 화훼수출액 중 묘목류가 5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3년부터는 절화류 수출이 절

² 1995년 네덜란드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1994년 네덜란드의 카네이션 생산은 전년에 비해 22%가 감소되었으며, 경영악화로 농가 350호가 도산하였다(권영삼, 「시설원예의 발전 방향」, 1997. 7. 15.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표 3 품목별 화훼류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변화 추이

단위: 천달러

	수 출						수 입						무 역 수 지 (A-B)
	계	절 화	묘 목	구 근	절지 절엽	화초 종자	계	절 화	묘 목	구 근	절지 절엽	화초 종자	
1980	1,055 (100.0)	28 (2.7)	191 (18.1)	-	813 (77.1)	23 (2.2)	1,123 (100.0)	100 (8.9)	148 (13.2)	597 (53.2)	24 (2.1)	254 (22.6)	△ 68
1985	560 (100.0)	11 (2.0)	103 (18.4)	-	276 (49.3)	170 (30.4)	3,697 (100.0)	3 (0.1)	1,396 (37.8)	1,237 (33.5)	147 (4.0)	914 (24.7)	△ 3,137
1990	2,485 (100.0)	160 (6.4)	1,394 (56.1)	15 (0.6)	213 (8.6)	703 (28.3)	10,286 (100.0)	347 (3.4)	4,223 (41.1)	4,229 (41.1)	315 (3.1)	1,172 (11.4)	△ 7,801
1995	7,832 (100.0)	2,682 (34.2)	3,834 (49.0)	2 (0.0)	546 (7.0)	768 (6.0)	34,733 (100.0)	2,245 (6.5)	21,549 (62.0)	8,486 (24.4)	879 (2.5)	1,574 (4.5)	△26,901
1996	5,698 (100.0)	1,415 (24.8)	3,618 (63.5)	10 (0.2)	302 (5.3)	353 (6.2)	40,141 (100.0)	2,509 (6.3)	26,933 (67.1)	7,774 (19.4)	1,116 (2.8)	1,809 (4.5)	△34,443
1997	6,070 (100.0)	2,168 (35.7)	3,442 (56.7)	100 (1.6)	58 (1.0)	302 (5.0)	39,198 (100.0)	2,171 (5.5)	26,524 (67.7)	7,790 (19.9)	1,232 (3.1)	1,481 (3.8)	△33,128
연 평 균 증감율(%)	10.8	29.2	18.5	-	△14.4	16.4	23.2	19.8	35.7	16.3	26.1	10.9	-

주: ()안은 구성비임.

자료: 농림부, 「화훼재배현황」, 각 연도.

지절엽을 앞서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전체 화훼 수출액의 35.7%에 해당되는 2,168천달러를 수출하였다. 화훼류 수입의 주종은 1986년까지 주로 구근류였으나, 이후 묘목류에 대한 수입 비중이 증가하여 1997년 전체 화훼 수입액 중 67.7%가 묘목류 수입이며, 비중이 큰 품목은 난초로서 주로 대만, 중국, 태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2.3. 국내 절화류 수출입 현황

2.3.1. 절화류 수출 현황

절화류의 주요 수출품목은 나리이며, 최근 장미와 국화에 대한 비중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나리의 경우 1991년 전체 절화류 수출액 중 0.6%인 0.2천달러로 수출실적이 미미하였으나, 1992년부터 수출액이 증가하기 시

작하여 1997년에는 94.7%인 2,054천달러를 수출하였다(표 4). 나리는 화훼 수출중에서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인장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출 실적을 나타내는 품목으로 자리잡았으며, 수출 품종은 오리엔탈계통의 카사블랑카가 대부분이다.

장미는 1994년 112천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절화류 수출액의 3.8%를 차지하였으나 수출액은 매년 감소하여 1997년에는 2.0%인 44천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쳤다(표 4). 이는 그동안 장미의 국내가격이 수출가격 보다 오히려 높아 재배농가가 수출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종이 수출국 기호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장미는 한 번 식재 후 3~4년간 수확이 가능하여 수출을 위한 품종 갱신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밖에 국화, 카네이션, 칼라

표 4 절화류 수출 실적

단위: 천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나 리	-	0.2 (0.6)	61 (64.2)	821 (90.3)	2,463 (84.2)	2,317 (86.4)	1,211 (85.6)	2,054 (94.7)
장 미	-	-	-	-	112 (3.8)	27 (1.0)	21 (1.5)	44 (2.0)
국 화	-	1 (3.1)	2 (2.1)	-	99 (3.4)	147 (5.5)	63 (4.5)	28 (1.3)
카네이션	13 (8.1)	-	8 (8.4)	-	8 (0.3)	24 (0.9)	3 (0.2)	3 (0.1)
칼 라	-	-	-	-	138 (4.7)	-	1 (0.1)	-
소 계	-	1.2 (3.8)	63 (66.3)	821 (90.3)	2,674 (91.4)	2,491 (92.9)	1,295 (91.5)	2,126 (98.1)
절 화 류 수 출 계	160	32	95	909	2,925	2,682	1,415	2,168

주: ()안은 절화류 수출계 대비 구성비임.

자료: 농림부, 「화훼재배현황」, 각 연도.

등이 수출되었으나 그 수출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IMF관리체제 이후 국내경기 위축과 소비 감소로 화훼가격이 급락하게 됨에 따라 수출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재배농가의 노력으로 화훼 수출이 확대되었다. 1998년 6월말 현재 화훼 수출액은 6,149천달러로 전년 동기 2,230

천달러에 비해 2.8배 증가하였다(표 5).

나리는 전체 화훼 수출액 중 38.5%인 2,369천달러를 수출하여 1997년 동기 대비 4.1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미의 경우 1997년에 비해 41.3배나 증가한 1,644천달러(전체 화훼 수출액 중 26.7%)를 수출하여 화훼류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속적

표 5 1998년 6월말 화훼류 수출 실적

단위: 톤, 천달러

	1997. 6.		1998. 6.		'98. 6 / '97. 6		톤당가격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1997. 6	1998. 6
나 리	47.8 (19.7)	572.1 (25.7)	221.1 (24.1)	2,369.1 (38.5)	4.63	4.14	12.0	10.7
장 미	4.3 (1.8)	39.8 (1.8)	208.3 (22.7)	1,643.7 (26.7)	48.44	41.30	9.3	7.9
선인장	183.4 (75.6)	1,547.5 (69.4)	196.7 (21.4)	978.4 (15.9)	1.07	0.63	8.4	5.0
난 초	2.3 (0.9)	20.2 (0.9)	16.3 (1.8)	116.6 (1.9)	7.09	5.77	8.8	7.2
국 화	0.5 (0.2)	7.0 (0.3)	0.7 (0.1)	1.3 (0.0)	1.40	0.19	14.0	1.9
기 타	4.5 (1.9)	43.8 (2.0)	274.4 (29.9)	1,040.1 (16.9)	60.98	23.75	9.7	3.8
수출계	242.8(100.0)	2,230.4(100.0)	917.5(100.0)	6,149.2(100.0)	3.78	2.76	9.2	6.7

주: ()안은 구성비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인 수출전략의 효과라기 보다 내수감소와 가격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8배 증가한 것에 비해 수출량은 3.8배 증대되어 1997년 6월 톤당 9.2천달러이던 것이 1998년 6월에는 톤당 6.7천달러 낮아져 수출단가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 저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는 국내 내수위축으로 인해 고품위의 화훼 뿐만 아니라 저품위의 화훼까지도 수출되어 양적인 증가는 이루었으나, 수출국에서 경락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3.2. 절화류 수입 현황

절화류의 수입은 1997년 2,171천달러로서 화훼 전체 수입액의 5.5%로 비중은 크지 않으나, 수입 품목이 양란, 카네이션, 건조화 등 국내에서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절화양란 수입이 1,746천달러로 전체 절화류 수입액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표 6). 절화양란은 타일랜드에서 덴파레, 네덜란드에서 심

비디움 등이 수입되고 있는데 고급 부케 등으로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절화 양란 수입은 IMF시대로 소비가 위축되어 그 수입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산 절화류의 고급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수입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3.3. 절화류 국별 수출 현황

우리 나라 화훼수출의 국별 비중은 1997년에는 일본이 43.6%(2,649천달러), 네덜란드와 미국이 각각 16.9%(1,028천달러), 11.5%(699천달러) 등으로 이들 3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화류 중 나리의 경우 1997년 전체 나리 수출액의 99.9%인 2,051천달러를 일본에 수출하였으며, 장미는 1994년 장미 수출액의 55.4%인 62천달러를 러시아에 수출하였으나 이후 일본시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1997년에는 84.1%인 37천달러를 일본에 수출하였다. 국화 또한 대부분 일본에 수출하는

표 6 절화류 수입 실적

단위: 천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난	258 (74.4)	627 (85.9)	1,400 (88.7)	1,757 (92.7)	1,695 (94.1)	2,071 (92.2)	2,206 (87.9)	1,746 (80.4)
카네이션	-	4 (0.5)	62 (3.9)	38 (2.0)	-	-	20 (0.8)	47 (2.2)
건 조 화	-	62 (8.5)	77 (4.9)	82 (4.3)	51 (2.8)	13 (0.6)	-	-
소 계	258 (74.4)	693 (94.9)	1,539 (97.5)	1,877 (99.0)	1,746 (96.9)	2,084 (92.8)	2,226 (88.7)	1,793 (82.6)
절 화 류 수 입 계	347 (100.0)	730 (100.0)	1,579 (100.0)	1,896 (100.0)	1,801 (100.0)	2,245 (100.0)	2,509 (100.0)	2,171 (100.0)

주: ()안은 구성비임.

자료: 농림부, 「화훼재배현황」, 각 연도.

표 7 절화류 품목별·국별 수출 실적

단위: 천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나 리	일 본	-	-	61(100.0)	722 (87.9)	2,459 (99.8)	2,312 (99.8)	1,208 (99.8)	2,051 (99.9)
	홍 콩	-	-	-	-	2 (0.1)	5 (0.2)	-	-
	기 타	-	-	-	99 (12.1)	2 (0.1)	-	3 (0.2)	3 (0.1)
	계	-	-	61(100.0)	821(100.0)	2,463(100.0)	2,317(100.0)	1,211(100.0)	2,054(100.0)
장 미	일 본	-	-	-	-	50 (44.6)	25 (92.6)	21(100.0)	37 (84.1)
	러시아	-	-	-	-	62 (55.4)	-	-	-
	기 타	-	-	-	-	-	2 (7.4)	-	7 (15.9)
	계	-	-	-	-	112(100.0)	27(100.0)	21(100.0)	44(100.0)
국 화	일 본	-	1(100.0)	2(100.0)	-	99(100.0)	144 (98.0)	58 (92.1)	20 (71.4)
	미 국	1(100.0)	-	-	-	-	3 (2.0)	-	-
	기 타	-	-	-	-	-	-	5 (7.9)	8 (28.6)
	계	1(100.0)	1(100.0)	2(100.0)	-	99(100.0)	147(100.0)	63(100.0)	28(100.0)

주: ()안은 구성비임.

자료: 농림부, 「화훼재배현황」, 각 연도.

비율이 높긴 하지만 수출금액 면에서는 미미한 실정이다(표 7).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주요 절화류 수출국은 일본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선도유지와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엔화하락 및 일본내 경기 위축으로 대일본 수출여건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함께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절화류 수출의 단계별 문제점: 민간수출업체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3.1. 절화류 수출 단계별 절차

화훼류 수출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민간수출업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운영하는 수출업체(전북무역 등) 그리고 생산자조

합(경기화훼농협 등) 등에서 대행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그 동안 화훼 수출을 주도하여 왔으나 향후 시험수출이나 해외시장 개척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지자체에서 출자하여 운영하는 수출업체는 수출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 생산자조합은 주로 묘목류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화류 수출은 1997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등 비교적 연륜이 짧은 편이다.

따라서 화훼수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민간수출업체인 A물산³을 대상으로 수출물량 수집 단계에서 선적에 이르기까지 절화류 수출의 단계별 절차를 조사하였으며, 그 수출절차⁴는 다음과 같다.

³ A물산은 주로 절화류를 수출하는 민간수출업체로서 대부분 나라와 장미를 수출하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화훼수출 경력은 길지 않은 편이나, 1998년 1~3월까지의 절화류 수출실적이 1,037천달러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270천달러나 수출규모가 비교적 크고 경력이 많은 모닝팜(282천달러)에 비해서도 높다.

- 수출하루전 15:00~18:50
: 서울에서 수출물량 수집을 위해 장미 재배 농가(임실, 장수) 방문
- 수출하루전 19:00~19:20
: 수출농가가 포장한 상품을 재선별하고 규격, 개수 등을 확인 후 수출품 인수
- 수출하루전 19:20~19:40
: 출하통지서(품명, 품종, 규격, 본/상자 등) 작성 및 냉장탑차에 선적
- 수출하루전 21:00~21:30
: 화훼 재배농가에서 수집된 장미를 냉장탑차에 선적(선적물량이 많아 냉장탑차 한 대는 A물산이 임대. 일일 임대료는 300,000원)
- 수출당일 04:00~07:40
: 수출 절화류를 선적한 냉장탑차 김포공항에 도착(나머지 한 대는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
 - 화훼재배농가에서 수집된 수출 절화류 물량 272상자중 155상자는 김포공항에서 나고야로 수출되고, 나머지 117상자는 부산 김해공항에서 후꾸오카로 수출
- 수출당일 08:00~08:20
: 검역신청서 접수 및 수출 절화 검역
- 수출당일 08:20~08:25
: 김포공항 화물청사내로 수출 절화류 운송
- 수출당일 08:25~08:50
: 수출 절화 화물청사내로 하차, 입고 후 수출통관
- 수출당일 10:30~10:50

: 일본 나고야행 KAL기(11:20분발)에 수출절화 기내 선적

- 수출당일 14:00시경
: 일본 현지에 도착한 절화류는 당일 검역 및 통관절차를 밟은 후 보세구역에서 출고되어 택배회사에 입고
- 수출 다음날 일본 내 각 시장에서 상장경매

수출국 검역에서 병해충 발견 등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수출품 인수에서 일본시장 내 상장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절화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수출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2. 절화류 수출 단계별 문제점

3.2.1. 수집단계에서의 문제

최근 IMF 관리체제로 인해 국내 화훼 소비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은 없어졌으나, 그 동안의 경우 국내 화훼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아 계약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 추진에 곤란을 겪었다.

또한 절화류 수출농가가 집단화되어 있지 못해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농가를 개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대량수집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일괄 방제가 불가능하여 검역을 통과

⁴ 화훼류 수출절차는 절화류(장미, 나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출 대상국은 일본의 경우를 예로 하였다.

표 8 대일 수출시 경비 : A물산의 경우

		산 출 근 거	상자당 비용
상자당 경락가격			45,000원
국 내 경 비			9,350원 (100.0)
	항 공 료	800 × 7.5kg	6,000원 (64.2)
	항공부대비	건당 40,000원	400원 (4.3)
	국내운송비	건당 70,000원	700원 (7.5)
	포장자재비		2,250원 (24.1)
해 외 경 비			14,775원
	소 비 세	수입가의 5%	2,250원
	통 관 료	건당 약 38,000엔	2,850원
	운 송 료	상자당 270엔	2,025원
	상장수수료	경락가의 10%	4,500원
	수입업체대행료	경락가의 7%	3,150원
농가 수취가격			20,875원

주: 1) ()안은 국내경비에 대한 구성비임.

2) 나리 카사블랑카 100상자(2,000본), 300엔/본 기준.

자료: A물산 내부자료.

하지 못하거나⁵ 수출국에서 혼증소독을 맞는 경우도 발생한다.

절화류 수출농가의 재배기술부족과 경험 부족, 시설의 낙후 및 양적 위주 생산으로 고품질의 규격생산이 미흡하고, 상품의 선별,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上品이 수출국에서 오히려 下品취급을 받아 적정가격을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절화류 수출 대상국은 주로 일본인데, 최근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경기침체와 꽃 가격하락으로 인해 출혈수출이 발생하여 수출업체가 수출을 기피하게 됨에 따라 수출농가의 판로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⁵ A물산이 수집하여 장미, 나리와 같이 일본으로 수출하려던 조팝나무의 경우 수출농가에서 병해충 방지를 위해 약품처리를 하였으나, 과다 살포로 인해 국내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폐기처분되었다.

3.2.2. 운송단계에서의 문제

수출 경비는 항공료, 항공부대비, 국내운송비, 포장자재비 등 국내경비와 소비세, 통관료, 운송료, 상장수수료, 수입업체 대행료 등의 해외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경비는 대부분 고정비로 볼 수 있으며, 국내경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항공료이다. 더욱이 환율인상에 따른 항공료의 대폭 인상으로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나리인 카사블랑카 100상자(2,000본)를 본당 300엔의 가격으로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⁶ A물산의 경우도 일본의 경기침체와 일본내 화훼가격의 갑작스러운 하락, 소비의 비수기(6~8월)로 인해 출혈수출이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당분간 절화류 수출을 중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절화 수출농가의 경우 또 다른 수출선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국내시장이 불안정하여 수출단가를 다소 인하하더라도 새로운 판로가 생길 때까지 A물산과 계속적으로 수출하기를 원하였다.

국내경비는 상자당 9,350원정도 소요된다. 이 중 항공료는 6,000원/상자로 국내경비 중에서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장자재비가 2,250원/상자로 24.1%를 차지하여 항공료와 포장재가 국내경비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항공료 부담이 가장 높아 수출시 애로 사항⁷이 되고 있다(표 8).

우리 나라의 절화 수출 대상국은 화훼소비 시기가 비슷한 일본에 편중되어 있어 일본내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나, 일본 이외의 나라에 수출할 경우 항공료 부담이 워낙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 절화가 공항에서 화물청사내로 하차되어 기내로 선적되기까지 약 3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때 수출 절화는 상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선도가 떨어져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2.3. 검역단계에서의 문제

수출용 절화 검역은 공항 청사내 식물검역소에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난후 검역관 1명이 검사대로 나와 포장된 수출 절화 중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개봉하게 된다. 개봉한 절화를 꺼내 털어낸 다음 검역관이 육안으로 병충해를 확인한 후 합격·불합격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 과학적인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우리 나라의 수출식물지정검사대는 김포공항 제2청사 주차장내 한쪽에 탁자를 놓아 둔 것이 전부이므로 제대로 된 검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용 화훼에 대한 검역의 미철저로 인해 수출국에서 훈증소독⁸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수출국에서의 상품 신뢰도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3.2.4. 지원제도의 문제

정부에서는 화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물류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1998년에는 4억 6천 5백만원('97년 대비 10%증가)이 책정되어 있다. 현 예산 4억 6천 5백만원은 절화 약 500,000kg(62,500상자)에 대한 지원분이나 올해 수출물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이 상반기에 이미 소진된 상태이다. 다행히 추경예산에 20억이 증액 책정되어 국고 보조가 부족한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당장 수출 물량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다.

생산기간이 4~5개월 소요되는 나리, 국화

⁷ A물산의 경우도 수출경비, 특히 항공료 부담을 다소 줄이기 위해 후꾸오까로 보내는 절화는 부산의 김해공항에서 선적하고, 나고야로 보내지는 절화는 김포공항에서 선적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⁸ 훈증소독이란 수출국 절화에서 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국내로 병해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청산가스나 취화메틸 등의 가스로 소독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일본에서 절화 소독에 이용되는 훈증방법은 SCALES, THRIPS WHITE, FLIES, APHIDS에 대한 청산가스 훈증과 기타 해충에 대한 취화메틸 훈증의 2가지 방법이 있다. 훈증소독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꽃에 대해 상당한 손상을 초래하여 꽃의 상품성 저하는 물론이고 심지어 현지에서 폐기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또한 훈증으로 인해 약 80,000엔(한화 약 600,000원)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때 추가비용은 농가와 민간수출업체가 50%씩 부담하게 되므로 양측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등과 같은 절화류 수출품은 국고 보조가 지원된다는 전제하에서 식재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국고 보조가 소진 될 것으로 예측한 수출업체와 생산농가는 출혈 수출을 우려하여 수출용 절화를 식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고 보조의 추가 확대에 의해 지금 식재한다 해도 출하하기까지 4~5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의 수출물량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 절화류 수출 확대 방안

절화류 수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대의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절화류 수출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촉진대책 및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자동화된 현대식 시설을 갖춘 전문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대량수집을 통한 수출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규모 생산과 기술적 통일이 이루어지면 고품위 上品의 공동선별·포장 및 공동 방제가 가능해져 수출국에서 上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문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기 조성된 첨단 유리온실에서 재배된 화훼를 수출용으로 전환하여 공동 출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우리 나라 절화 수출국은 일본에 편중되어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배단계에

서부터 일본시장에 맞는 품종을 식재하고, 철저한 등급화·규격화로 불량품이 혼재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화훼소비 시기, 소비품종, 규격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 후 수출 가능국을 선정하여 비수기(6~8월)때 높은 수출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출농가는 이 시기에 고품위의 화훼가 출하될 수 있도록 재배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국에서 훈증소독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대적 시설을 갖춘 과학화된 검역장소 확보 및 전문 검역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수출전 현지검사 확인제도⁹가 도입되어 신속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주요 절화 수출 품목인 나리, 장미, 국화 등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구 생산, 재배환경조절기술 개발, 방제기술 향상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이 필요하다(표 9).

다섯째, 현 상황에서는 수출에 대한 정부의

⁹ 수출전 현지검사 확인제도는 절화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입후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일본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출국에서 일본의 식물방역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수입시점에서의 검사를 최소한으로 하는 현지검사 확인 시스템으로 수출국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양국간의 전문가에 의한 기술적 검토 협의 및 현지조사 등을 행하여 도입한다.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항상 안정되게 대량의 절화를 일본으로 수출할 것. 둘째, 현재 수입되고 있는 절화에서 병해충이 발견될 확률이 낮을 것. 셋째, 본 시스템 도입후 대일절화수출의 100%를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할 것. 넷째, 일본에서 전문가를 파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수출국측에서 부담할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수입되는 절화는 일본의 수입항에서 간단한 검사만이 실시되기 때문에 대단히 신속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 대해 수출전 현지검사 확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국고 보조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의 수출 물류비 보조금의 대부분은 과수와 채소에 집중되어 있고 화훼에 대한 국고 보조가 적어 수출물량 증가로 보조금이 소진될 경우 출혈수출이 불가피 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출물량 예측과 함께 과수와 채소 부문에 책정된 보조금의 신속적 운영을 통해 화훼수출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 국내경비 중 항공료의 부담이 가장 크므로 항공사와 정부 차원의 장기 저가 수송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항 내 신선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수송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어 수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출 절화류 뿐만 아니라 청과물, 기타 수출 농산물 등의 저온저장도 가능하여 선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국내 내수용 화훼의 등급화·표준화·규격화가 수출규격에 맞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상장된 고품위의 절화가 선정된 후 곧 바로 수출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여덟째,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 동안 화훼 수출은 선인장 단일 품목에 의지해 왔으며, 국내 선인장이 국제 교역 물량의 약 70%를 점유하여 왔다. 최근 선인장 수출은 감소한 반면, 나리는 1997년 6월 대비 4배, 장미는 41배로 수출이 신장되었다. 그러나 장미는 내수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어 수출품목이 선인장과 나리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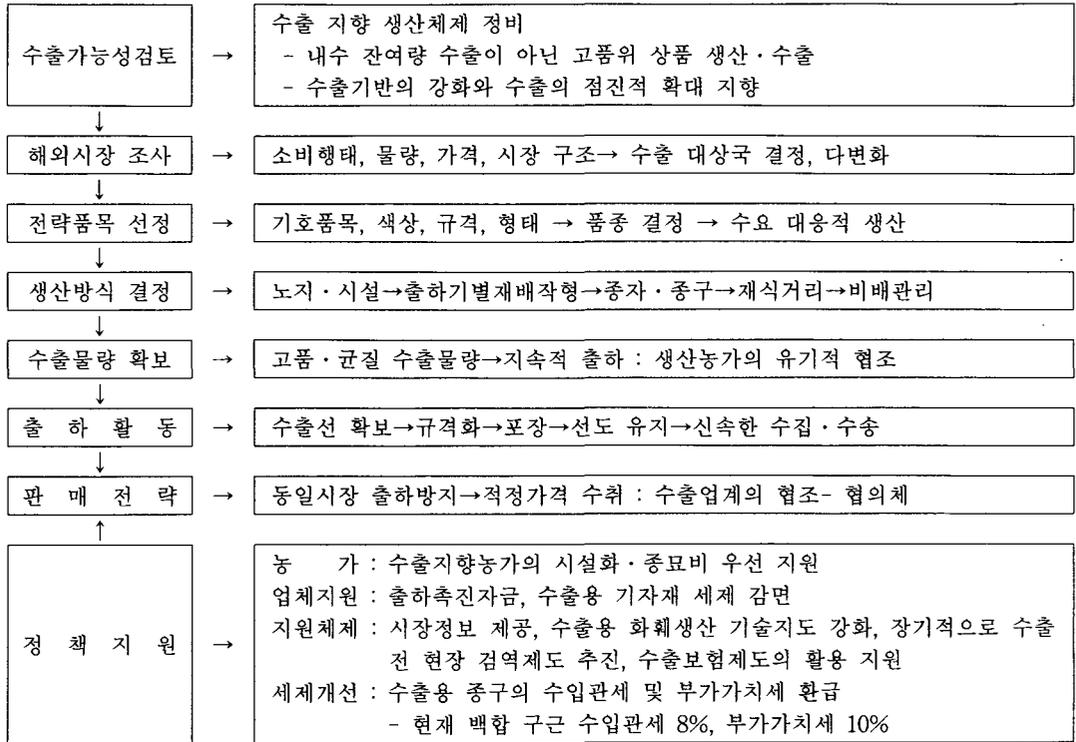
아홉째, 수출시장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국제 화훼시장의 품목별 수급 상황과 품종 보호제도, 검역제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생산자에 제공하는 정보

표 9 대일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경쟁 대상국과의 장단점 및 개선방향

	경쟁국	경쟁국과의 장단점	개 선 방 향
나 리	화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기간 짧아 유리 ○ 구근비대환경 유리 ○ 재배기술 및 경력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구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규모확대 및 기계화 - 구근저장 시설 보완(온도 ±0.1℃ 조절) ○ 절화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환경조절기술 보완 - 연중 생산기술 보완 - 수출 단지화로 경영비 절약
장 미	대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화의 규격품 생산 미흡 ○ 병충해 방제기술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위주에서 품질위주 생산으로 전환 ○ 총채벌레, 응애, 진딧물 철저 방제 ○ 지역별 증점출하 작형 개발 ○ 수송 및 포장기술 보완
국 화	화 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기간 짧아 유리 ○ 시설재배 불가피 ○ 병충해 방제기술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애, 총채벌레, 진딧물 방제기술 보완 ○ 출하시기 조절기술 보완 ○ 묘생산자와 절화생산자의 분리로 전문화에 의한 건전묘 이용 ○ 품질향상을 위한 재식거리 및 생육환경 개선

자료: 김영진, "IMF를 대비한 화훼산업의 전략", 「화훼협회보」, 1998.

그림 1 목표 시장 대응 전략적 수출체계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출 확대 방안에 따른 전략적 수출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5. 결론

화훼산업은 1960년대부터 화훼농가의 기술 축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리고 1990년에 들어 정부의 농업경쟁력제고 대책으로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시장·유통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산업도 같이 발전할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세계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정체를 겪고 있는 농업 부문에서 성장률이 높은 고품가가치 산업으

로 촉망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IMF관리체제로 인해 국내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화훼가격이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생산농가의 경영비가 증가하는 등 화훼재배농가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화훼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절화류 수출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수출확대는 국내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수지 개선과 외화획득 측면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절화류의 수출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수출관련 주체의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절화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가능성 검토, 해외시장 조사, 수출전략품목 선정 및 생산방식 결정 등 사전적 전략과 지속적인

고품위의 수출물량 확보, 규격화와 신속한 수집·수송 활동 등 사후적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원 확대 및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러한 사전적·사후적 전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확대 방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내 내수의 확대를 전제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출 지원정책의 수립이다. 국내 소비기반 확충 및 수출체계의 정립이 없는 수출확대란 그저 일시적 선언이나 수출지상주의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권영삼. 1997. 「시설원예의 발전 방향」.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 김영진. 1998. “IMF를 대비한 화훼산업의 전략,” 「화훼협회보」. 화훼협회.
- 농림부. 각 연도. 「화훼재배현황」.
- 농수산물유통공사. 1997. 「품목별 무역정보」.
- 농정연구포럼. 1994. 「원예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제13회 월례세미나결과 보고서.
- 이동희. 1992. “절화류 수출활성화 방안,” 「절화수출대책 세미나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이두순 외. 1997. 「화훼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 이영석·김정호. 1990. 「화훼산업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영현. 1993. 「국제 화훼수출입동향과 한국의 수출잠재력 분석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日本 農林水産省. 各年度. 「ポケット園藝統計」.
- 日本 農林水産省. 1993. 「花き流通統計調査報告」.
- 財團法人 日本花普及センター編. 1997. 「'96フラワーデータブック」.
- HPP. 1997. International Floriculture Trade Statistics.
- AIPH(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ural Producers). 1988.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Horticulural Statistics. Vol.36.